



수탉의 존재와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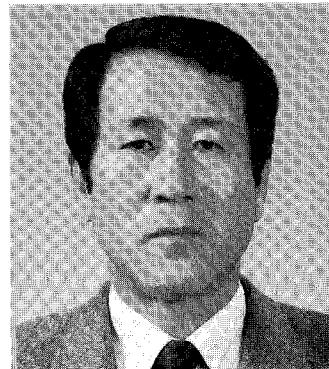
1. 수탉의 위력

종계사업의 꽃은 종란 생산이다. 종계의 산란 능력은 암탉의 몫이고 수탉의 종란생산 기여도는 50%를 차지한다.

지난해 8월의 혹서는 대단한 것이었다. 33~36°C를 치솟은 고온이 근 1개월 가까이 지속되었으니 종계인들 어찌 무사했겠는가? 이 더위로 적계는 5%에서 많게는 15% 이상 수정율 저하를 가져왔을 것이란 계산이다. 이 수치를 근거로 육용종계(PS)에서 평균 8~9% 하락율로 계산해보면 당시 2004년 8월중 국내 육용실용 계(CC) 종란 입란갯수 29,500,000개(양계협회 통계자료) $\times 0.08 \rightarrow 2,360,000$ 개로 2,000,000 수 이상의 육용 실용계(CC) 생산이 감소된 것이다.

대개 혹서로 인한 부화율 하락은 ① 고온에서 종란 보관방법, ② 심한 더위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 ③ 입란 전 외부고온에서 불완전한 배자 발육 등이다. 외에 더 큰 영향은 수탉의 수정 능력 저하가 될 것이다. 수탉에 의한 수정율 저하원인은 수탉의 교배 횟수 감소, 정액(정자)생산량 감소 등이다.

대부분, 조류수컷의 고환은 몸 안에 들어있다. 일반 포유류의 고환이 외부에 노출되어 추위와



홍 광 표 풍전부화장 대표

더위에 조절이 쉽게 된 신체구조에 비한다면 이 점은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닭에 적당한 외부기온이 15~18°C일 때 닭의 체온은 40°C정도이다. 2배가 넘는 30~35°C의 외부기온 일 때 신체 내부 고환의 역할은 정상 적일 수 없다.

1999년부터 2003년 5년간 매 8월부터 12월 까지 병아리 가격은 평균 364원(양계협회 통계 자료 참고)인 것에 비해 2004년 같은 기간에는 512원을 기록했다. 통상 이 계절의 가격상승을 소비증가 요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면, 분명 이것은 수탉 수정능력 저하에 의한 생산 감소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겠는가?

2. 수탉의 수난

닭의 자연적 성비(性比: 병아리 감별 시)는 품종, 계종, 계절, 사료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수컷(♂)51: 암컷(♀)49 비율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동물에서 새로 태어나는 새끼들도 수컷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여럿 가운데 생존한 개체만이 앞으로 있을 지속적 제반 투쟁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조물주의 배려란 생각이 든다.

순화되기 전 야생의 닭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부다처(一夫多妻) 형태였다.

기업양계에서도 수탉의 사육은 다수의 암컷에 필요한 만큼의 적은 수컷이 사육되는 똑같은 일부다처 형태이다.

1935년 일본인 마쓰이 와 하시모토씨가 실용화 한 병아리 감별은 사료비 절감, 인건비 절감, 시설 활용도 배가 육종사업 등 양계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반면, 병아리 수컷에게는 생명단축이란 비극적인 계기가 되었다.

백색 산란 실용계의 50% 가까운 수(♂)병아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PL, GPS, PS에서 육종상 필요계통의 반대라인(♀, ♂ 동시 대상)은 이 감별

판정으로 곧바로 산재로 폐기 될 수밖에 없다.

평사 사육에서 암컷에 대한 수컷 비율이 육용계 8~10%, 산란계 6~7%로(케이지 사육은 3%) 암컷에 비한 그 생존입지와 필요성이 적어진 것도 수탉만의 수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수탉의 가치

필요한 수수의 적정 수탉 사육은 경제적인 양계 사업의 기본이다. 인간세상에서 일당백이란 말이 있다. 종계 수탉은 일당 10~16수이다.

(케이지 30수) 종계수탉 한 마리의 죽음은 단지 한 마리로 기록될 수 없다. 즉 죽은 암탉 한 마리 와 동일 시 하면 안 된다. 같은 수치의 종계산란율과 부화기에 입란된 종란의 수정율 하락은 그 피해가 수정율 하락 쪽이 사뭇 심각한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 계산상으로 따져 봐도 그렇다.

예를들면 암탉 100수가 70% 산란한다고 할 때 산란율이 5% 하락하면 6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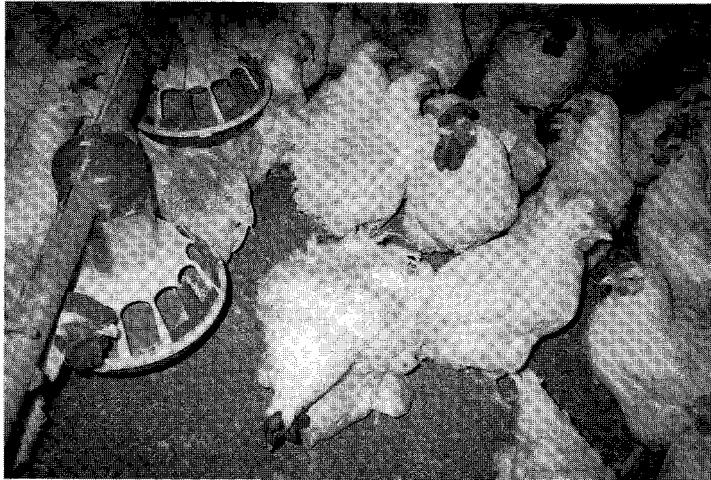
가 생산되지만, 수탉 1수의 유고가 생기면 암탉 12 수 × 70% = 8.4 개(모두 무정)로 산란율은 61.6%로 8.4%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은 극진하다. 한결 예쁘고 깜찍스런 손녀보다 더 큰 애착으로 돌보는 이유는 그 고유한 가문의 씨(종자)를 그 손자 녀석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위주의 산업사회에서 화재나 수재에 의한 재난 시 생명을 무릅쓰고 씨앗을 지키려는 자세나, 외부침략의 와중에도 피난 보따리 속에 꼭 들

표1. 감별법과 적용대상

감별방법	개발년도	대상
1. 항문감별(Vent Sexing)	1935년	PL, GPS, 백산란계, 육용계CC
2. 기계감별(Machine method)	1950년	"
3. 깃털감별(Feather Sexing)	1969년	PS, 육용계CC
4. 색깔감별(Colour Sexing)	1975년	PS, 산란갈색CC



수탉 1수에 암탉 10~12마리가 적정수

어 있는 씨앗(종자) 보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 수탉 관리 실제

암탉의 산란 피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란능력 지속성이다.

수탉에서는 노계 도태 시까지 일정한 수정율 유지이다. 어느 한 계군의 한결같은 수정율 유지를 위해서는 수탉의 도, 폐사를 줄여 기본 수수를 확보케 하고, 모든 수탉의 균일도를 맞추는 일이다. 비슷한 정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10:1이나 12:1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漢)의학의 통설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한 인간(남자)이 일생동안 쓸어 낼 수 있는 정액 생성량은 서말 서되로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각종 보약과 의술과 희한한 기구를 모두 동원한다고 해도 기본량은 변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 한창 젊을 때 방탕한 외도로 그 양을 절제 없이 허비한다면 곧바로 양은 바닥나게 되고, 아울러 신체적 노화도 빨리 온다고 한다. 과거 절대 권력자인 왕들의 단명 원인 중에 하나가 수많은 여인들과의 빈번한 성관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글쎄 예외인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닭의 청춘을 대략 28~35주령까지로 본다면 이

시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통 닭은 15~20분 간격으로 교미행위를 한다. 한창때인 수탉은 이보다 그 간격이 좁다. 우리 인간으로선 감히 흉내 내기 어려운 과도한 짹짓기로 여겨진다. 이 시기에 수정율은 정상 발육된 수탉이라면 수준급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시기에 관리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적어도 앞으로 향후 2~3주후의 체중 변화에 입각한 관리). 특히, 이 시기에는 적정 암·수비율 유지이다. 후기를 염두에 둔 여벌의 수탉은 과도한 동료 간 경쟁으로 역효과를 가져오게 할 따름이다.

수탉의 체중관리는 간혹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외관으로 수탉이 풍성하고 듬직하게 보이면 그 개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말하는 기생오라비(난봉꾼)들은 모두가 뚱뚱하지 않다. 그 유명한 서양의 돈 판 카사노바나 중국고전 수호지에 등장인물 반금련의 애인 서문경, 우리 한국의 옹녀 남편 변강쇠 등이 뚱뚱했었다는 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지 않은가?

쉬운 얘기로 기생오라비 체구 같은 날렵한 몸을 가진 수탉으로 만들어져야 오래오래 능력 있는 수탉구실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5. 수탉 기(氣) 살리기

작가 빅토 위고는 “인생은 투쟁이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종계 수탉의 처지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종계 사육인들은 공격적이고 투쟁적인 싸움꾼 수준의 수탉으로 키워야 한다. 즉 기(氣)를 살

려 매사에 겁 없는 놈들로 만들면 된다.

요즈음 조용해야 할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끔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의 젊은 엄마들은 단지 아이 기 살리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그냥 방치하고들 있다.

이 아이 엄마와 똑같은 생각으로 수탉을 키우면 된다. 암평아리에 우선하여 입추시부터 충분한 공간(활동, 급이, 급수)을 제공한다.

사육계사에서는 수평아리에게 겁주는 행동을 적극 삼가 한다.

동료와 비교하여 발육에 뒤처지는 개체는 구분 관리를 통해 절대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한다. 농장 주도 동일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 종계장에서 일일 계군 현황일지 확인시 또는 계사 관리자에게 우선 알고 싶은 사항이나 묻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금일의 수탉 도·폐사 내역, 체중 변화 등을 암탉의 산란수와 산란율 추이보다 먼저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계군 상태 점검을 위해 계사 안에 들어가면 수탉의 경계소리가 얼마만큼 암탉들을 압도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낯선 외부 침입자(수탉 입장에서)인 나를 향하여 다수의 수탉이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상황이면 이 수탉들은 끝까지 제구실을 할 놈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관례화된 여유분의 수탉, 보충할 수탉을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 수수의 수탉 사육을 하게 될 것이고, 굳이 남는 수탉이 백세미 생산으로 전용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여유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목초액)

동광축산컨설팅(구.동광공업)

대 표 : 최 성 태

휴대폰 : 011-374-8461~2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